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4년 3월 현재) -

2014년 7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www.ksli.org www.facebook.com/ksiedit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¹⁾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4년 3월 현재)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 첫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2,942개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36만 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23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7.3%로 통계청 조사(13.4%)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62만 명(37.3%)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75만 명(17.2%),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7만 명(20.0%)이다. 한데 노동부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64만 명을 정규직 29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2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3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1만 명(43.8%),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48만 명(33.9%)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3만 명(9.9%)으로 줄어든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거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산업별 차이가 크지만, 같은 산업에서도 기업별 차이가 크고 사용방식이 다르다. 이는 기업의 인력관리 방식을 개선하면 비정규직 비율과 사용방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이번에 처음 시행한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

1) 이 글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의 의뢰로 작성한 글입니다.

1. 전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4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23만 명(12.1%)이고,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617만 명(87.9%)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비정규직 비율이 13.4%고 5인 미만 사업체는 79.1%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다수(사업체수 99%, 노동자수 88%)가 중소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9988 신조어(新造語)가 생겨났고,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어 왔다.

<표1>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자수(비율)

	수(천명)			구성(%)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736	2,787	3,523	4.0	15.2	19.2	79.1
5-9인	1,360	1,852	3,212	7.4	10.1	17.5	57.7
10-29인	2,288	1,772	4,060	12.4	9.6	22.1	43.6
30-99인	2,466	1,137	3,603	13.4	6.2	19.6	31.6
100-299인	1,390	384	1,774	7.6	2.1	9.6	21.6
300인이상	1,928	298	2,226	10.5	1.6	12.1	13.4
전규모	10,167	8,229	18,396	55.3	44.7	100.0	4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3월) 원자료.

그러나 노동부가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300인 이상 대기업 2,942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43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23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7.3%로 통계청 조사(13.4%)보다 3배 높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두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통계청 조사는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는 기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자동차 완성업체 영업판매소 직원이라면, 기업체 기준으로는 거대기업 소속이지만,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체 소속이다.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은행원도 마찬가지다. 둘째, 통계청 조사는 사내하청을 따로 조사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비해,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는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소속외 근로자)으로 분류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7만 명(20.0%)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75만 명(17.2%)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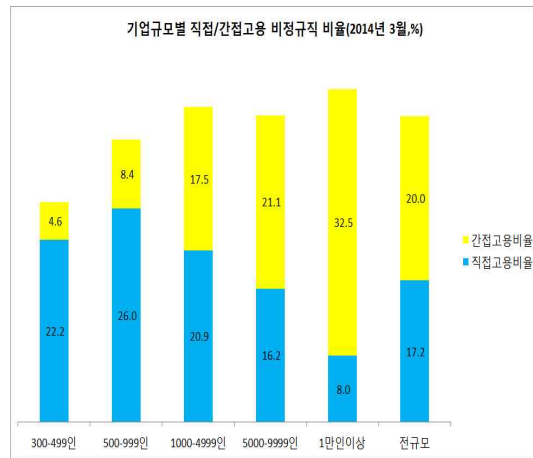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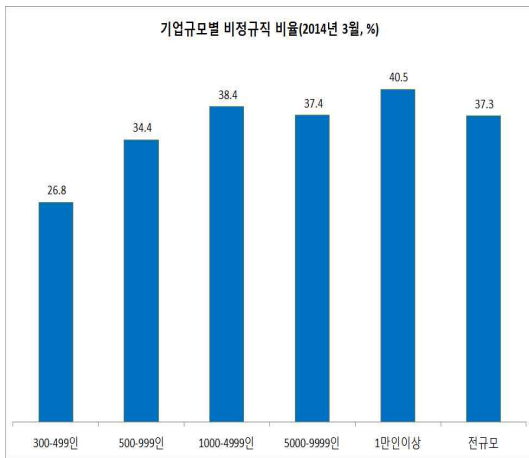
그동안 정부는 경영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체가 워낙 많고 이들 중소기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얘기해 왔다. 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는 정부와 민간 대기업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²⁾. 여기에 중소기업체와 사내하청업체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정부와 대기업만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하더라도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2) 자세한 것은 김유선(2014),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차이”, KLSI 이슈페이퍼 2014-16 참조바람.

2. 규모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는 300인 미만 기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98개 기업 2만 2천 명(직접고용 상시근로자 기준 139개 기업 4만 2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무시하도록 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즉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26.8%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0.5%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4.6%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2.5%다. 이에 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500인 이상 1천인 미만 기업(26.0%)을 정점으로 1만인 이상 거대기업 8.0%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낮아진다. 거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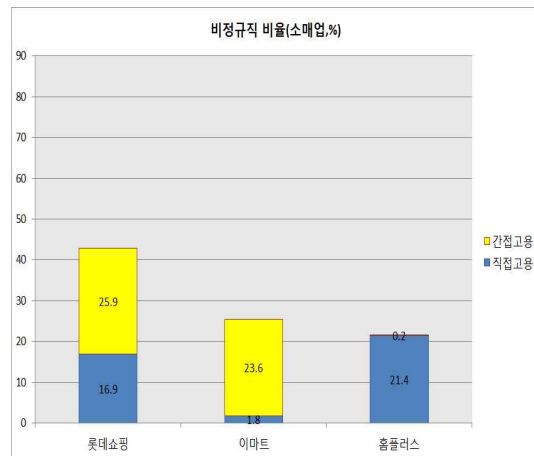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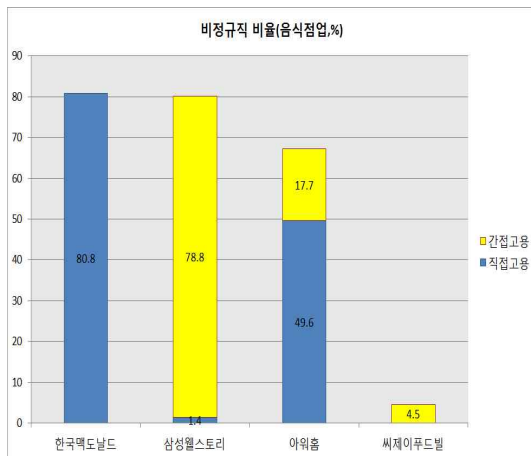


<표2> 기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전체 노동자 기준)

기업규모 (전체노동자 기준)	기업 수 (개)	노동 자수 (천명)	정규 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300인 미만	98	22	13	9	9	8	0	41.7	40.2	38.5	1.5
300-499인	1,022	403	295	108	89	84	19	26.8	22.2	20.9	4.6
500-999인	1,003	692	454	238	180	167	58	34.4	26.0	24.1	8.4
1000-4999인	680	1,299	800	499	271	243	227	38.4	20.9	18.7	17.5
5000-9999인	82	549	344	205	89	85	116	37.4	16.2	15.4	21.1
1만인 이상	57	1,393	828	565	112	86	453	40.5	8.0	6.1	32.5
전규모	2,942	4,358	2,735	1,623	750	672	873	37.3	17.2	15.4	20.0
300인 이상	2,844	4,336	2,722	1,614	742	664	873	37.2	17.1	15.3	20.1

<표3>에서 1만 명 이상 거대기업 57개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우건설(91.8%), 롯데건설(81.5%), 현대건설(81.4%), 한국맥도날드(80.9%), 삼성웰스토리(80.3%) 5개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고, 미8군(2.4%), 씨제이푸드빌(4.5%), 엘지디스플레이(7.7%), 삼성전기(9.8%) 4개사는 10%가 안 된다. 기업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크다.

둘째, 같은 산업에서도 비정규직 비율과 사용방식 차이가 크다. 음식점업 비정규직 비율은 한국맥도날드(80.9%), 삼성웰스토리(80.3%), 아워홈(67.3%), 씨제이푸드빌(4.5%) 순이고, 한국맥도날드는 직접고용, 삼성웰스토리는 간접고용, 아워홈은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혼합으로 비정규직 사용방식에 차이가 있다. 소매업 비정규직 비율은 롯데쇼핑(42.8%), 이마트(25.3%), 홈플러스(21.6%) 순이고, 홈플러스는 직접고용, 이마트는 간접고용, 롯데쇼핑은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혼합으로 비정규직 사용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는 기업의 인력관리 방식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과 사용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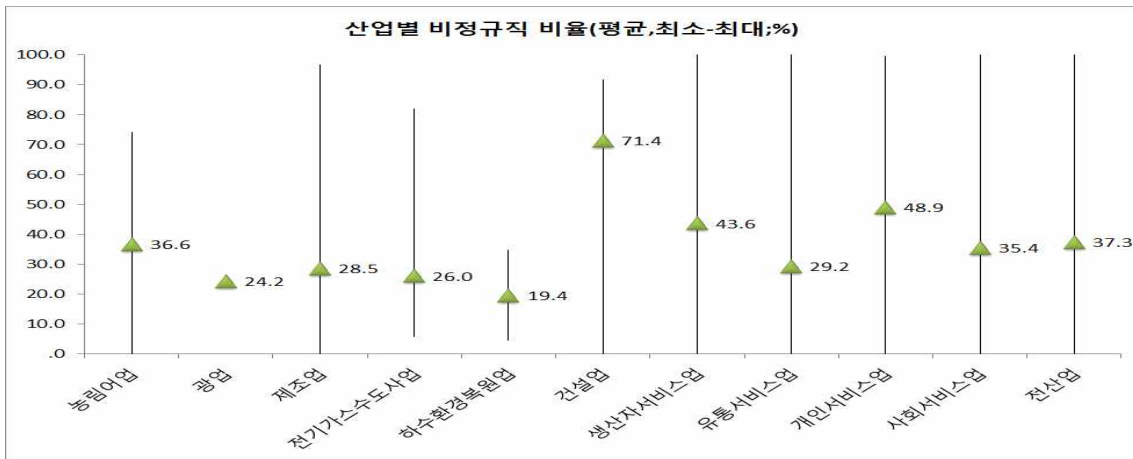
<표3> 1만인 이상 거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회사이름	산 업	노동자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롯데리아	10	12,151	2,754	9,397	9,397	9,397	0	77.3	77.3	77.3	0.0
효성	13	10,997	7,698	3,299	609	609	2,690	30.0	5.5	5.5	24.5
LG화학	20	15,573	12,921	2,652	67	67	2,585	17.0	0.4	0.4	16.6
아모레퍼시픽	20	11,642	4,612	7,030	230	230	6,800	60.4	2.0	2.0	58.4
포스코	24	33,759	17,286	16,473	750	750	15,723	48.8	2.2	2.2	46.6
현대제철(주)	24	22,763	10,382	12,381	425	425	11,956	54.4	1.9	1.9	52.5
삼성디스플레이	26	33,709	27,725	5,984	102	102	5,882	17.8	0.3	0.3	17.4
삼성전기	26	14,523	13,105	1,418	250	127	1,168	9.8	1.7	0.9	8.0
삼성전자	26	123,570	96,237	27,333	1,029	980	26,304	22.1	0.8	0.8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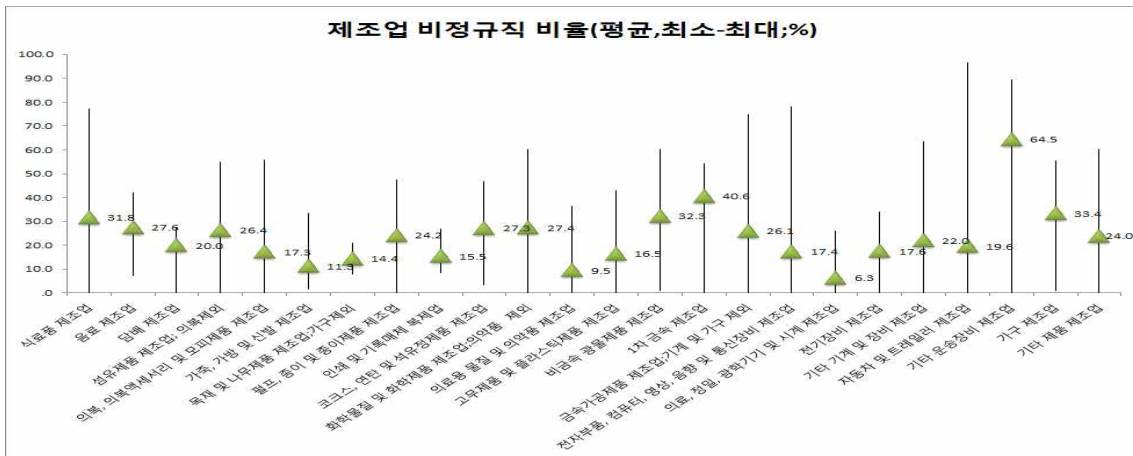
에스케이하이닉스	26	25,916	21,005	4,911	6	6	4,905	18.9	0.0	0.0	18.9
엘지디스플레이	26	36,719	33,875	2,844	55	55	2,789	7.7	0.1	0.1	7.6
엘지이노텍	26	10,050	8,659	1,391	158	158	1,233	13.8	1.6	1.6	12.3
엘지전자	26	42,366	37,534	4,832	751	751	4,081	11.4	1.8	1.8	9.6
기아자동차	30	38,518	33,263	5,255	382	382	4,873	13.6	1.0	1.0	12.7
한국지엠(부평공장)	30	20,827	16,822	4,005	21	21	3,984	19.2	0.1	0.1	19.1
현대모비스	30	13,783	7,387	6,396	217	217	6,179	46.4	1.6	1.6	44.8
현대자동차	30	75,003	60,253	14,750	3,684	3,684	11,066	19.7	4.9	4.9	14.8
대우조선해양	31	43,874	12,829	31,045	379	379	30,666	70.8	0.9	0.9	69.9
삼성중공업(주)건설	31	38,825	13,702	25,123	746	727	24,377	64.7	1.9	1.9	62.8
현대미포조선	31	13,616	3,715	9,901	161	161	9,740	72.7	1.2	1.2	71.5
현대삼호중공업	31	14,966	4,259	10,707	127	121	10,580	71.5	0.8	0.8	70.7
현대중공업	31	68,523	26,342	42,181	1,414	1,414	40,767	61.6	2.1	2.1	59.5
GS건설	41	16,306	5,749	10,557	3,279	1,669	7,278	64.7	20.1	10.2	44.6
SK건설	41	15,535	5,006	10,529	2,574	1,616	7,955	67.8	16.6	10.4	51.2
대림산업	41	15,528	4,372	11,156	2,416	2,371	8,740	71.8	15.6	15.3	56.3
대우건설	41	51,880	4,248	47,632	21,314	2,391	26,318	91.8	41.1	4.6	50.7
두산중공업	41	10,271	7,255	3,016	1,196	1,166	1,820	29.4	11.6	11.4	17.7
롯데건설	41	11,769	2,180	9,589	1,954	695	7,635	81.5	16.6	5.9	64.9
삼성물산	41	24,201	8,533	15,668	2,450	1,211	13,218	64.7	10.1	5.0	54.6
삼성엔지니어링(주)	41	17,358	6,016	11,342	1,273	1,011	10,069	65.3	7.3	5.8	58.0
포스코건설/본사	41	16,058	3,643	12,415	1,897	1,897	10,518	77.3	11.8	11.8	65.5
현대건설	41	24,196	4,509	19,687	3,959	2,785	15,728	81.4	16.4	11.5	65.0
롯데쇼핑	47	42,892	24,548	18,344	7,230	7,230	11,114	42.8	16.9	16.9	25.9
이마트	47	36,518	27,267	9,251	648	648	8,603	25.3	1.8	1.8	23.6
홈플러스	47	21,075	16,524	4,551	4,517	4,517	34	21.6	21.4	21.4	0.2
서울메트로	49	10,565	9,183	1,382	9	9	1,373	13.1	0.1	0.1	13.0
씨제이대한통운	49	15,366	4,985	10,381	424	419	9,957	67.6	2.8	2.7	64.8
대한항공	51	24,212	17,962	6,250	1,350	1,342	4,900	25.8	5.6	5.5	20.2
삼성웰스토리	56	12,497	2,467	10,030	179	179	9,851	80.3	1.4	1.4	78.8
씨제이푸드빌	56	12,419	11,858	561	5	5	556	4.5	0.0	0.0	4.5
아워홈	56	11,929	3,896	8,033	5,922	5,660	2,111	67.3	49.6	47.4	17.7
한국맥도날드	56	10,092	1,931	8,161	8,156	8,156	5	80.9	80.8	80.8	0.0
KT	61	53,516	31,872	21,644	285	285	21,359	40.4	0.5	0.5	39.9
삼성에스디에스(주)	62	20,247	14,139	6,108	193	193	5,915	30.2	1.0	1.0	29.2
국민은행	64	26,164	21,036	5,128	648	648	4,480	19.6	2.5	2.5	17.1
농협은행주식회사	64	16,860	13,707	3,153	2,884	2,884	269	18.7	17.1	17.1	1.6
신한은행	64	19,296	14,253	5,043	533	533	4,510	26.1	2.8	2.8	23.4
우리은행	64	18,634	15,229	3,405	291	291	3,114	18.3	1.6	1.6	16.7
하나은행	64	11,519	9,099	2,420	344	344	2,076	21.0	3.0	3.0	18.0
한국외환은행	64	10,136	7,544	2,592	415	415	2,177	25.6	4.1	4.1	21.5
에스원	75	16,992	5,830	11,162	459	459	10,703	65.7	2.7	2.7	63.0
케이텍맨파워	75	10,020	6,859	3,161	3,161	3,161	0	31.5	31.5	31.5	0.0
연세대학교	85	15,947	8,277	7,670	5,385	5,385	2,285	48.1	33.8	33.8	14.3
가톨릭학원	86	16,805	11,959	4,846	2,643	2,637	2,203	28.8	15.7	15.7	13.1
아산사회복지재단	86	11,049	7,824	3,225	971	968	2,254	29.2	8.8	8.8	20.4
삼성버랜드	91	11,450	4,444	7,006	1,879	1,360	5,127	61.2	16.4	11.9	44.8
미8군	99	12,210	11,914	296	296	296	0	2.4	2.4	2.4	0.0

3. 산업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71.4%), 개인서비스업(48.9%), 생산자서비스업(43.6%), 농림어업(36.6%), 사회서비스업(35.4%), 유통서비스업(29.2%), 제조업(28.5%) 순이다. 그러나 건설업과 제조업 모두 최소값이 0%고, 최대값은 건설업 91.8%, 제조업 96.8%다. 건설업과 제조업 모두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9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 있다.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64.5%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은 19.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17.4%다. 하지만 이들 3개 산업 모두 최소값은 0%고, 최대값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96.8%), 기타운송장비제조업(89.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78.0%) 순이다. 이상은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이 산업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해당 기업의 인력관리 방식에서 비롯된 측면 또한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표4>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대대분류 기준)

산업	기업 수 (개)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제조업	919	1,616	1,155	461	61	56	401	28.5	3.8	3.4	24.8
기타재화생산	115	346	109	238	74	33	164	68.7	21.3	9.5	47.4
생산자서비스업	992	1,098	619	479	378	359	100	43.6	34.5	32.7	9.1
유통서비스업	460	714	505	209	71	69	138	29.2	9.9	9.6	19.3
개인서비스업	142	227	116	111	68	66	43	48.9	30.1	28.9	18.8
사회서비스업	314	356	230	126	98	91	28	35.4	27.7	25.4	7.7
전산업	2,942	4,358	2,735	1,623	750	672	873	37.3	17.2	15.4	20.0

<표5>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대분류 기준)

산업(대분류)	기업 수 (개)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농림어업	7	5	3	2	1	1	1	36.6	25.0	23.0	11.6
광업	1	1	1	0	0	0	0	24.2	4.6	4.6	19.6
제조업	919	1,616	1,155	461	61	56	401	28.5	3.8	3.4	24.8
전기가스수도사업	13	9	6	2	1	1	1	26.0	15.1	6.2	10.8
하수환경복원업	9	7	6	1	1	1	0	19.4	15.7	14.1	3.7
건설업	85	325	93	232	70	30	162	71.4	21.6	9.4	49.9
금융보험업	145	324	239	85	29	29	56	26.4	9.1	8.9	17.3
부동산임대업	43	59	28	31	21	20	10	52.1	35.8	34.0	16.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05	81	66	15	11	10	4	18.7	13.2	12.2	5.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699	635	287	348	317	300	30	54.8	50.0	47.3	4.8
도소매업	156	290	196	94	39	38	54	32.3	13.6	13.3	18.7
유수업	154	184	133	52	14	13	38	28.0	7.5	7.3	20.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50	240	177	63	17	17	46	26.4	7.3	6.9	19.2
숙박음식점업	74	158	73	85	50	50	34	53.7	32.0	31.4	21.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1	23	13	10	4	3	6	44.5	17.2	13.5	27.3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45	46	30	16	14	13	2	34.7	30.1	28.5	4.5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	5	4	2	2	2	2	0	58.9	57.9	54.7	1.1
교육 서비스업	93	148	81	67	55	53	12	45.2	36.9	35.6	8.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16	190	134	56	41	35	15	29.6	21.6	18.5	8.0
국제의국기관	2	14	13	0	0	0	-	2.2	2.2	2.2	-
전산업	2,942	4,358	2,735	1,623	750	672	873	37.3	17.2	15.4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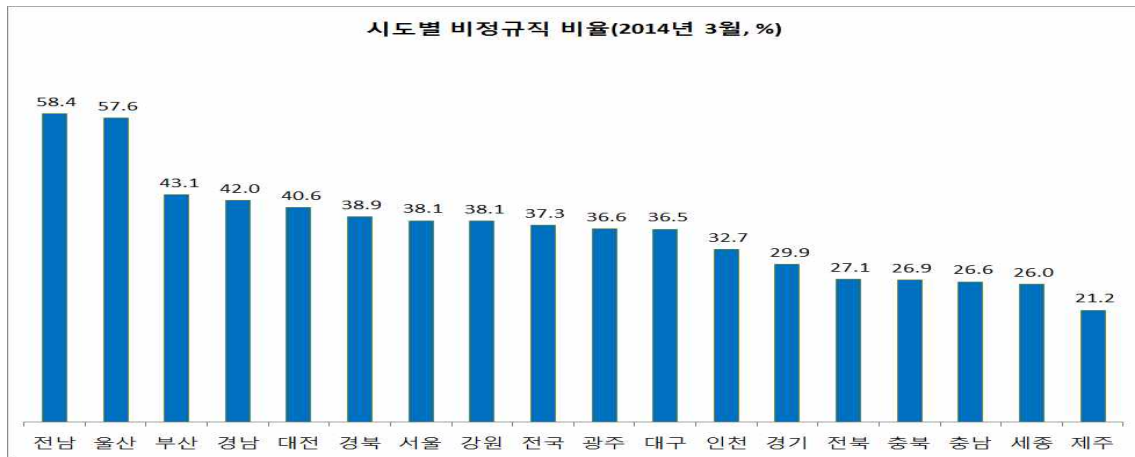
<표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중분류 기준)

산업(중분류)	기업 수 (개)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농업	2	1	1	0	0	0	0	22.6	21.3	21.3	1.3
임업	1	1	1	0	0	0	0	26.0	24.9	15.2	1.1
어업	4	3	2	1	1	1	1	43.8	26.0	26.0	17.8
석탄, 원유, 천연가스 광업	1	1	1	0	0	0	0	24.2	4.6	4.6	19.6
식료품 제조업	76	123	84	39	19	17	20	31.8	15.5	14.2	16.4
음료 제조업	12	18	13	5	2	2	4	27.6	8.4	8.3	19.2
담배 제조업	4	8	7	2	0	0	1	20.0	2.2	2.2	17.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9	26	19	7	2	1	5	26.4	5.9	5.6	20.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모피제품 제조업	28	19	15	3	1	1	2	17.3	5.2	4.5	12.2
가죽가방신발제조	7	4	4	1	0	0	0	11.3	8.7	7.5	2.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	1	1	0	0	0	0	14.4	3.2	2.7	11.2
펄프, 종이 및 종 이제품 제조업	14	11	9	3	0	0	2	24.2	2.1	1.3	22.1
인쇄기록매체복제	4	2	1	0	0	0	0	15.5	2.0	1.1	13.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19	14	5	0	0	5	27.3	1.7	1.7	25.6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73	116	84	32	3	3	28	27.4	2.9	2.4	24.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9	42	38	4	1	1	3	9.5	2.8	2.7	6.7
고무제품 및 플라 스틱제품 제조업	30	39	33	6	1	1	5	16.5	3.0	2.2	13.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3	31	21	10	1	1	9	32.3	3.6	1.9	28.8
1차 금속 제조업	49	98	58	40	3	3	37	40.6	2.8	2.7	37.8
금속가공제품제조 업:기계및가구제외	32	21	16	6	1	0	5	26.1	4.7	2.3	21.4
전자부품, 컴퓨터, 영 상,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165	425	351	74	6	5	68	17.4	1.3	1.3	16.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8	8	7	1	0	0	0	6.3	3.6	2.6	2.7
전기장비 제조업	27	28	23	5	1	1	4	17.6	4.1	3.7	13.5
기타 기계 및 장 비 제조업	58	56	44	12	2	2	11	22.0	3.3	3.2	18.7
자동차 및 트레일 러 제조업	141	264	212	52	8	8	44	19.6	3.1	3.1	16.5
기타우송장비제조	32	230	82	149	4	4	144	64.5	1.9	1.8	62.6
가구 제조업	5	3	2	1	0	0	1	33.4	5.9	5.9	27.5
기타 제품 제조업	23	23	18	6	4	4	2	24.0	17.2	17.0	6.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3	9	6	2	1	1	1	26.0	15.1	6.2	10.8
하수, 폐수 및 분 노 처리업	8	6	5	1	1	1	0	19.4	15.5	13.8	3.9
폐기물수집운반,	1	1	1	0	0	0	0	19.5	16.9	16.9	2.6

처리및 원료재생업												
종합 건설업	66	310	86	224	63	28	162	72.2	20.2	8.9	52.1	
적무직별 공사업	19	15	7	8	8	3	0	54.4	51.3	18.6	3.0	
자동차부품판매업	11	5	5	1	0	0	0	11.1	2.5	2.0	8.6	
도매및상품중개업	58	59	45	14	5	4	10	23.8	7.6	7.0	16.2	
소매업;자동차제외	87	225	146	79	35	34	44	35.0	15.5	15.2	19.5	
육상운송 및 파이 프라인 운송업	96	89	67	22	5	5	17	24.6	5.7	5.6	19.0	
수상 운송업	9	11	7	3	1	1	2	30.7	12.0	10.8	18.6	
항공 운송업	8	37	29	8	3	3	6	22.4	7.0	7.0	15.4	
창고운송서비스업	41	47	29	18	5	5	13	38.3	10.3	10.1	28.0	
숙박업	32	43	23	20	9	9	10	46.0	21.4	20.7	24.6	
음식점 및 주점업	42	115	50	65	41	41	24	56.6	35.9	35.3	20.7	
출판업	44	33	27	6	4	4	2	17.6	11.4	10.6	6.3	
영상·오디오 기록 물 제작 및 배급업	3	9	7	2	1	1	1	26.3	13.9	13.9	12.4	
방송업	11	18	13	5	1	1	4	27.8	4.8	3.0	23.0	
통신업	16	90	60	31	6	6	24	33.7	6.9	6.9	26.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53	70	54	16	3	3	13	22.5	3.7	3.6	18.8	
정보서비스업	23	18	15	4	3	3	1	19.5	14.2	13.9	5.3	
금융업	50	185	131	53	12	12	41	28.8	6.7	6.6	22.1	
보험 및 연금업	53	90	69	21	9	9	12	23.5	10.2	10.2	13.3	
금융보험서비스업	42	49	38	11	8	8	3	22.3	15.7	15.7	6.6	
부동산업	25	30	7	23	16	15	7	77.5	53.6	51.3	23.9	
임대업;부동산제외	18	29	21	8	5	5	3	26.3	17.7	16.5	8.6	
연구개발업	8	6	4	2	2	1	1	35.7	26.5	23.8	9.1	
전문서비스업	22	26	23	3	2	2	2	13.1	6.8	6.5	6.2	
건축기술,엔지니어 링및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50	32	27	5	4	4	1	16.5	11.8	10.9	4.6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	16	12	4	3	3	1	26.0	20.9	19.9	5.0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52	196	67	129	120	114	9	65.9	61.2	58.1	4.7	
사업지원 서비스업	447	439	220	218	197	186	21	49.8	45.0	42.5	4.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	4	2	2	2	2	0	58.9	57.9	54.7	1.1	
교육 서비스업	93	148	81	67	55	53	12	45.2	36.9	35.6	8.3	
보건업	144	144	114	30	15	15	15	21.1	10.7	10.3	10.4	
사회복지 서비스업	72	45	20	26	26	20	0	56.9	56.5	44.6	0.4	
창작, 예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6	2	1	1	0	0	0	33.0	20.0	18.1	13.0	
스포츠오락서비스	15	21	12	10	4	3	6	45.5	16.9	13.1	28.6	
협회 및 단체	30	38	23	15	13	12	2	38.9	33.6	31.8	5.2	
수리업	8	5	4	0	0	0	0	9.0	6.9	6.8	2.2	
기타 개인서비스업	7	3	3	1	1	1	-	22.9	22.9	21.6	-	
국제 및 외국기관	2	14	13	0	0	0	-	2.2	2.2	2.2	-	
전산업	2,942	4,358	2,735	1,623	750	672	873	37.3	17.2	15.4	20.0	

4. 시도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58.4%)과 울산(57.6%)이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21.2%)다. 울산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51.7%로 가장 높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5.9%로 가장 낮다. 전남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43.5%로 두 번째로 높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4.8%로 중간 정도다. 제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6.1%로 가장 낮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5.0%로 중간 정도다. 서울은 비정규직 비율이 일곱 번째로 높는데, 직접고용(19.1%)과 간접고용(19.1%) 반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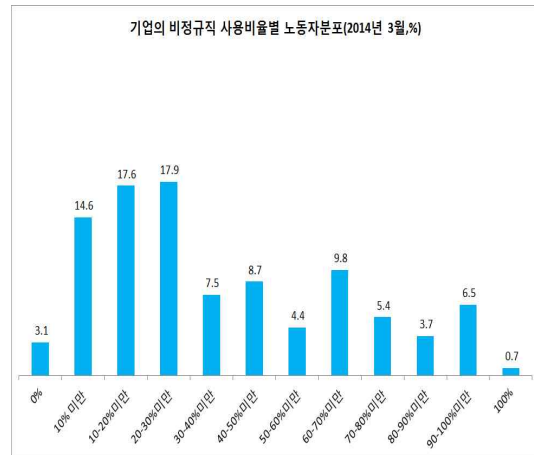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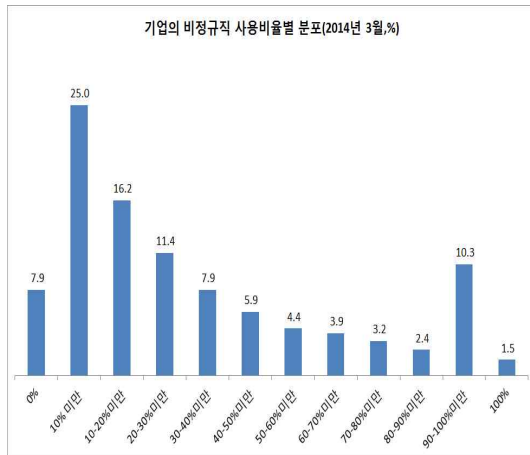


<표7>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광역시도 기준)

시도	기업 수 (개)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서울	1,455	2,606	1,612	994	497	437	497	38.1	19.1	16.8	19.1
부산	160	136	78	59	39	37	20	43.1	28.7	26.8	14.4
대구	82	65	41	24	18	16	6	36.5	27.3	25.1	9.2
인천	110	109	74	36	17	16	19	32.7	15.5	14.5	17.2
광주	34	40	25	15	11	10	4	36.6	27.1	24.5	9.5
대전	65	71	42	29	16	15	13	40.6	22.6	20.8	18.1
울산	51	121	51	70	7	7	63	57.6	5.9	5.5	51.7
세종	7	5	3	1	0	0	1	26.0	7.8	7.7	18.3
경기	508	688	483	206	85	80	121	29.9	11.6	0.7	17.6
강원	34	29	18	11	7	6	4	38.1	24.3	20.7	13.8
충남	83	78	58	21	12	11	9	26.6	15.2	14.6	11.3
충북	54	43	31	12	7	7	5	26.9	15.4	15.3	11.5
전남	25	29	12	17	4	2	13	58.4	14.8	7.6	43.5
전북	35	30	22	8	4	4	4	27.1	14.2	14.2	12.8
경남	119	172	100	72	13	12	60	42.0	7.3	7.2	34.6
경북	104	124	76	48	12	11	36	38.9	9.9	8.9	29.0
제주	16	11	9	2	2	1	1	21.2	15.0	12.2	6.1
전지역	2,942	4,358	2,735	1,623	750	672	873	37.3	17.2	15.4	20.0

5.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

전체 2,942개 기업 가운데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233개 (7.9%)고, 10% 미만 사용하는 기업이 969개(32.9%)다. 100% 비정규직만 사용하는 기업은 43개(1.5%)고, 9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 346개(11.8%)다.



<표8>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별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비율	기업 수 (개)	노동자 수 (천명)	정규직 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구성(%)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0%	233	135	135	-	-	-	-	-	-	-	-
10% 미만	736	638	605	33	17	15	16	2.0	2.2	2.3	1.9
10-20%미만	478	766	644	121	37	36	84	7.5	5.0	5.3	9.6
20-30%미만	334	781	588	193	64	61	128	11.9	8.6	9.0	14.7
30-40%미만	233	326	214	112	49	44	63	6.9	6.6	6.5	7.2
40-50%미만	174	379	211	168	61	58	107	10.4	8.2	8.6	12.2
50-60%미만	128	194	87	107	54	52	52	6.6	7.2	7.7	6.0
60-70%미만	115	427	152	275	80	70	195	16.9	10.6	10.5	22.4
70-80%미만	95	236	61	175	67	59	108	10.8	8.9	8.8	12.4
80-90%미만	70	160	26	134	61	50	73	8.3	8.1	7.4	8.4
90-100%미만	303	285	11	274	232	206	43	16.9	30.9	30.6	4.9
100%	43	31	-	31	28	23	3	1.9	3.7	3.4	0.4
전체	2,942	4,358	2,735	1,623	750	672	873	100	100	100	100

한데 100% 비정규직만 사용한다고 응답한 43개 기업 3만 1천 명 가운데 37개 기업 2만 8천 명과, 비정규직은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33개 기업 13만 5천 명 가운데 106개 기업 7만 3천 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 75)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력파견 용역업체이므로 실제로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 줄어든다.

6. 요약과 함의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4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23만 명(12.1%)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3.4%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다수(사업체 수 99%, 노동자수 88%)가 중소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9988 신조어(新造語)가 생겨났고,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어 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300인 이상 대기업 2,942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3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23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7.3%로 통계청 조사(13.4%)보다 3배 높다. 실제로 통계청 '임금근로자리 행정통계'에서 2012년 현재 정부와 민간 대기업 노동자는 696만 명(43.7%)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의 노동정책 방향은 노동시장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대기업이 올바른 노동정책을 선택하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62만 명(37.3%)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75만 명(17.2%),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7만 명(20.0%)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64만 명을 정규직 29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2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3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만약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1만 명(43.8%),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48만 명(33.9%)으로 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3만 명(9.9%)으로 줄어든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거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산업별 차이가 크지만, 같은 산업에서도 기업에 따라 차이가 크고 사용방식이 다르다. 이는 기업의 인력관리 방식을 개선하면 비정규직 비율과 사용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